

생활불교용어



'동물의 왕' 사자는 불교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위대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자후(獅子吼)'.

사자후

대중을 압권하는 큰스님 법문 백수의 왕 사자의 포효서 비유

리를 '사자좌'라 하고, 부처님의 걸음걸이를 '사자보(獅子步)'라 한다. 사자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하고 겁이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비유해 '사자심(心)'이라 하며, 오른쪽 앞구리를 아래로 하고 누워서 발을 포개고 가사로 몸을 덮고 바른일을 생각함을 일컬어 '사자와법(獅子說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정려된 사자의 비유와 불법의 상징 중 가장 체계적인 것은 <보우경(寶雨經)>이다. <보우경>은 사람이 불법에 따라 여법(如法)하게 수행하는 보살을 사자와 비유하였다.

숲속의 왕 사자는 모든 짐승들이 굴복하므로 숲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고뇌로부터 벗어나 두려움이 없는 보살의 힘을 '득불경포(得不驚怖)'의 힘이라 하여 사자의 위력에 비유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요즘은 큰스님이 주시는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지만, 국화에서 시종일관 열변을 토하는 연설이나 거침없는 웅변의 경우에도 '사자후'라는 표현이 자연스레 통용되고 있다.

참고 안길모퉁 '이판사판 야단법석'

“남 이롭게 하면 나도 이롭다”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8



그림·이준석

오늘날의 사회를 고도 산업사회라고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었으며 물질적 풍요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물질적 평가하게 만들고 이 물질은 인간을 관능적 향락 추구로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물질 추구의 관련이 없는 활동은 하지 않거나, 한다 해도 체면 유지의 요식 행위로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이다. 즉 오늘날의 사회는 관능적 향락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획득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강도, 살인, 성폭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는 점차로 흉악화, 지능화, 연소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인류를 구출하고 인류번영의 모습

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며 돈 생기는 일과 관련이 없으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봉사 활동은 돈과 관련 없는 활동이기에 심지어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열등한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데 돈의 무조건적 추구가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이기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일 '나와 더불어 남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면 아마도 이 사회는 보다 밝은 사회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회악의 근원은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심지어는 남도 내가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마음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남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는 자는 남이 괴로워하거나 남에게 손해 되거나, 남이 비참해지는 행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진하여 남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 이익이 되며, 남이 좋게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남 위해 봉사하면 만족감도 얻고 자기성장도 가능 보시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인성교육

“나와 남 더불어 산다” 인류번영의 기초 봉사생활 향상일로 무주상보시 도달

물

론 '나'는 지극히 소중한 절대적 존재이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함을 받는다면 남의 소중함도 또한 믿어야 한다. 이 점이 바로 보시정신의 기본 철학이다.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대아(大我)에 소아(小我)를 통합시키는 것이 보시정신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불자로 자칭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느 정도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극히 의심스럽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종교 단체들은 포교의 목적을 겸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을 중심으로 또는 불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성화된 봉사 활동은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돈 없고, 병 들고, 할 벗고, 나이 많고, 몸이 부자유스러우며, 마음이 빼돌어지고, 부모가 없고, 죄 지은 몸이 된 자 앞에는 향시 다정하고 따뜻한 여정갑어린 불자의 자비의 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봉사 활동은 힘들

고 구질구질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시간 빼앗기고, 돈도 생기지 않는 활동이나 그러기에 불자로 자처하는 우리들은 이 일에 뛰어 들어야 한다.

봉사 활동은 남을 위한 활동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철저히 나를 위한 활동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리타타(自利利他)라고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남을 위하여 일하면 일한 만큼 자기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기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남을 위하여 더 일하게 되고 이것은 더욱 더 자기성장을 가져온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선순환(善循環)을 향상일로(向上一路)라고 말씀하셨다.

향상일로의 길을 걷다 보면 남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마저 없어지게 되며 봉사한다는 자체가 남을 위하여 아니라 자기 자신의 즐거움 때문이라는 자리(自利)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이타(利他)의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은 자리(自利)가 되고 자리는 향상된 이타를 가져오며 이 이타는 더욱 향상된 자리를 낳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리가 이

타이며 이타가 자리가 되어 자리와 이타가 돌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한 보시(布施), 즉 진제적 보시(眞諦的 布施)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어야 한다고 한다. 봉사활동이 남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 자기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떠나 심지어는 봉사한다는 생각마저 떠나며 떠났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때 참다운 보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다는 일반적 개념에 의한 봉사 활동은 보시(布施)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경지는 오랫동안 걸친 불교적 봉사 활동과정을 거쳐 비로소 도달될 수 있는 경지이다.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 가며 남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에 도취하는 속제(俗諦)의 수행을 거듭할 때 진제적보시(眞諦的 布施)의 경지에 이르게도 한다. 따라서 속제적보시(俗諦的 布施)인 주상보시(住相 布施)와 진제적보시(眞諦的 布施)인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불이(不二)의 사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흉탕들이 모든 것을 삼킬 듯 성난 모습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우리 불자는 이 흉탕물을 맑게 할 보시의 굵고 굵은 새물결을 흘러 보내야 한다. 진제적무주상보시(眞諦的無住相布施)를 간직한 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 활동을 전개하자.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경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자수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의원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며 불자들을 돕는 오년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참깨씨유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장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